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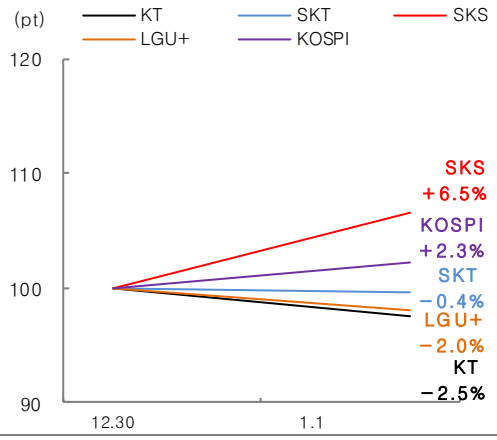
기업	25/12/30	26/01/02	26/01/02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53,300	53,300	▼ 200	▼ 0.4%	▼ 200	▼ 0.4%	2,100	3.9	
SK스퀘어 (402340)	368,000	392,000	392,000	▲ 24,000	▲ 6.5%	▲ 24,000	▲ 6.5%			
KT (030200)	52,600	51,300	51,300	▼ 1,300	▼ 2.5%	▼ 1,300	▼ 2.5%	2,500	4.9	
LGU+ (032640)	14,720	14,430	14,430	▼ 290	▼ 2.0%	▼ 290	▼ 2.0%	650	4.5	
KOSPI	4,214.2	4,309.6	4,309.6	▲ 95.5	▲ 2.3%	▲ 95.5	▲ 2.3%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26년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전망은 밝다.**
- 통신 주간 -1.6%, KOSPI +2.3%. YTD 통신-1.6%, 지수 +2.3%
- KT와 LGU+에 대한 해킹 조사 결과 발표 및 KT 위약금 면제 등 고객 보답 프로그램 시행으로 약세. 단기 약세는 불가피하나, 전망은 양호
- '3사 모두 26년 경영 화두로 안정과 신뢰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제시. 해킹 이슈를 거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졌고, 가입자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마케팅 과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각 사별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보안 관련 투자 등을 감안하면 마케팅 과열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2월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26년 주주환원 정책 등이 공개되고 주가도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26년에는 5G SA, 5.5G 등 기술 업그레이드 및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초부터 비중 확대 필요. KT, LGU+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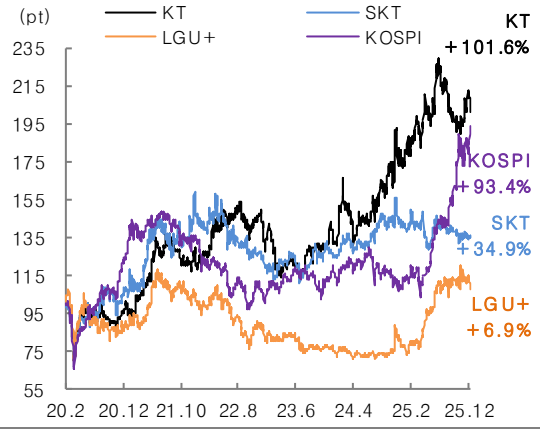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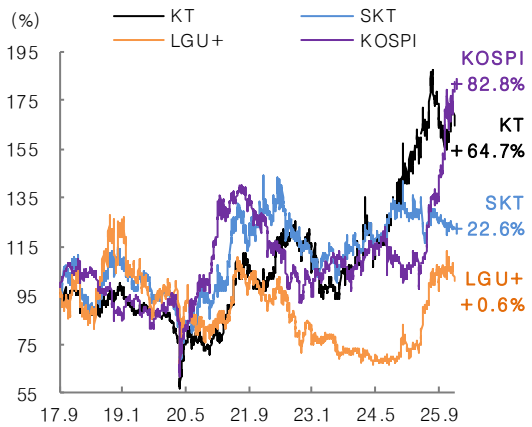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2/6))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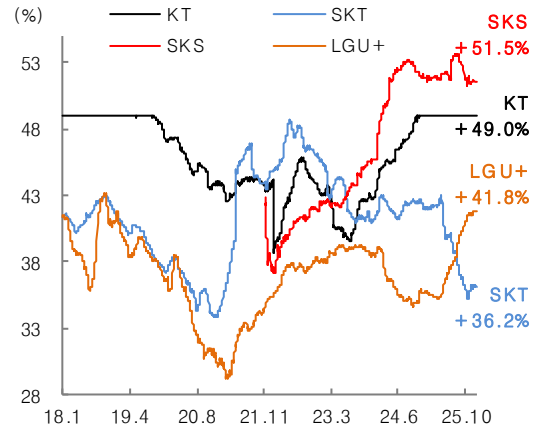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7.9월 선약할인률 상향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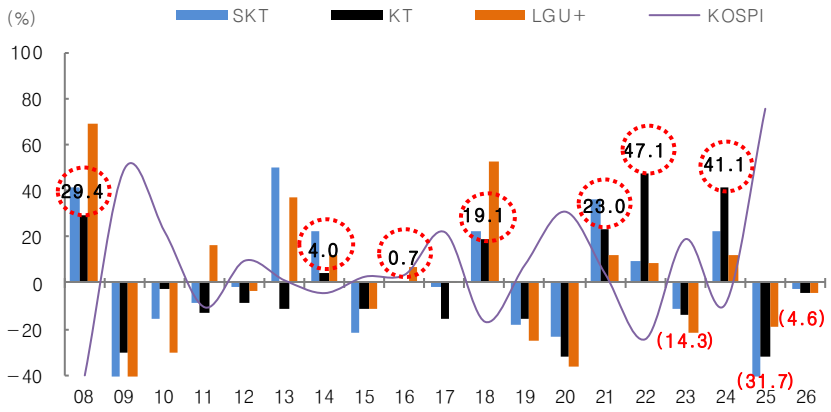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LGU+ -2.0%(-4.1%), KT -2.5%(-4.6%), SKT -0.4%(-2.6%)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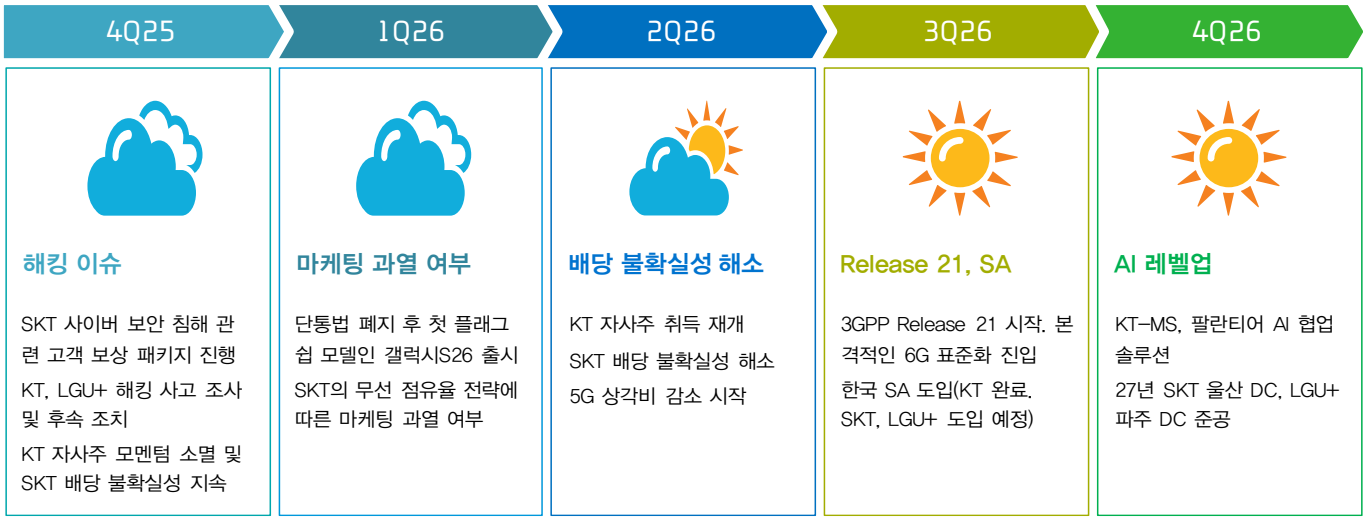
2Q 실적 시즌까지는 지수와 유사하거나 강세를 보였으나, 9월 정보보호 이슈로 상대적 약세 구간 진입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0.4)	(2.5)	(2.0)	2.3	(2.6)	(4.6)	(4.1)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3. 26 년 산업/주가 기상도

성장은 낮아도, 마케팅비와 감가비 부담 완화로 이익은 꾸준히 상승. 26E OP5.4조원(+15% yoy). 해킹 마무리, 배당 불확실성 해소되는 2Q26부터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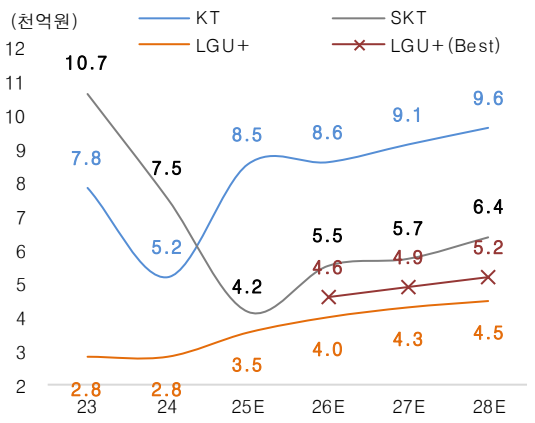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주간 코멘트

KT 침해사고 조사결과, SKT 초거대 AI, 2025 통신사 품질평가, KT 가입자 이탈, 통신 3사 2026 전략	
KT KT 침해사고 조사결과	1. 정부가 KT 침해사고를 불법 펨토셀·악성코드가 결합된 복합 공격으로 규정하고, KT의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이 사태를 키웠다고 결론 2. 불법 펨토셀이 KT 인증서·인증서버 IP 정보를 이용해 내부망 접속 후 단말을 강제 연결시켜 전화번호·IMSI·IMEI 등을 탈취, ARS·SMS 인증정보를 가로채 368명, 777건 무단 소액결제(2억여원) 발생 및 2만여명 유심정보 유출 확인 3. KT 펨토셀 관리체계에서 제조사 공용 인증서 사용, 인증서 유효기간 10년, 비정상 IP 차단·형상정보 검증 부재 등 구조적 취약점 확인, 정부는 10년→1개월 인증서 단축(9/10)·KT 유선 IP 외 차단(9/23)·형상정보 인증(10/3~)·제품별 인증서(11/5) 등 후속 조치 요구 4. 총단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로 무력화돼 평문 문자·통화 탈취 가능성까지 확인, 일부 단말(아이폰 16 이하)에서 SMS 평문 전송 문제도 지적되며 암호화 설정 보완·모니터링 강화 주문 5. KT는 웹셸·BPFDoor 등 악성코드 감염 기간이 2022.04.02~2024.04.19로 추정되고, 루트킷·백도어는 2023.03.11~2025.07.04로 추정되는 가운데 총 94대 서버에서 103종 악성코드 확인, 로그 1~2개월 보관과 보안장비 미비로 추가 유출 여부 확인에는 한계 6. 정부는 KT의 침해사고 미신고에 과태료 예고(최대 3,000만원)와 자료 은폐 정황으로 경찰 수사 의뢰, 약관상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 LGU+도 APPM 서버 관련 자료 유출 사실 확인과 OS 재설치·서버 폐기 등 조사 방해 정황으로 경찰 수사 의뢰
중립적	■ 조사 결과를 토대로 KT는 9/1~1/13 해지 고객에 대해 위약금 면제 적용. 기타 고객 보답 프로그램으로 월 데이터 100GB를 6개월간 제공하는 등 약 4.5천억원 규모의 혜택 제공 예정 ■ 보상 규모가 작지는 않지만, 실적에 반영되더라도 KT의 주주환원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보상이 진행되면서 실적 추정이 일부 하향 조정될 수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리스크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SKT SKT 초거대 AI	1. SKT 정예팀이 매개변수 500B(5,000억 개) 규모 초거대 AI 모델 'A.X K1'을 공개하며 글로벌 AI 3강과 '모두의 AI' 실현을 목표로 공식 출사표 2. 30일 코엑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주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정석근 SKT AI CIC장이 대국민 프리젠테이션 진행 3. SKT는 글로벌 경쟁을 위해 500B급 모델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 고난도 산업 문제 해결과 국가 AI 인프라(SOC) 역할 수행 가능성 부각 4. GPU 클러스터 '해인', 울산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인프라–모델–서비스를 잇는 'AI 가치 사슬'과 SK그룹 차원의 시너지 강점 제시 5. 서울대·KAIST 연구진과 반도체·게임·모빌리티·서비스·데이터 기업 참여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AI 활용 생태계 강조 6. 현장 체험존에서 신속·사고 모드 챗봇 시연, 에이닷 1000만 이용자와 B2C·B2B 확산 역량을 기반으로 AI 대중화 추진 계획
중립적	■ 한국형 초거대 AI 모델 개발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판단. 앞으로 벌어질 AI 시대에 궁극적으로 자체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강점으로 작용 가능 ■ 다만, 범용 AI를 활용한 BM을 발굴하면서 동시에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산업 2025 통신사 품질평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발표한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KT가 전국 5G·LTE 동시측정 다운로드 속도 1,030.25Mbps로 1위를 기록.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KT가 SKT를 앞선 사례 2. SKT는 1,024.50Mbps로 근소한 차이의 2위, LGU+는 865.88Mbps로 3위. 전국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로 전년 대비 52Mbps 감소 3. 지역별 5G 속도는 실내 시설(1,057.90Mbps)과 대도시(1,089.72Mbps)가 가장 빠르고, 농어촌(617.47Mbps), 고속철도(393.01Mbps) 등 이동·취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4. 올해부터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 지표를 도입해 이용자 체감 품질을 반영. 5G 요구속도 충족률은 SKT 98.39%, LGU+ 98.28%, KT 97.88%로 전반적으로 안정적 5. 웹검색(5Mbps)과 SNS 숏폼(20Mbps)은 충족률 99% 이상을 기록, 고화질 스트리밍(100Mbps)은 98.18%로 서비스 고도화 구간에서 격차 발생 6.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6.18Mbps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 5G 자원 전환 영향으로 영상회의 기준 LTE 요구속도 충족률은 74.2%에 그쳐 일부 지역에서 체감 품질 저하 확인
중립적	■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974Mbps이면, 이론 속도 기준으로는 약 3~4Gbps에 해당. 5G 도입시 내린 정의는 20Gbps여서 추가 품질 개선 필요 ■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5G-SA 도입, 5.5G로의 진화, 주파수 대역폭 확대 등의 보완 작업 필요
KT KT 가입자 이탈	1.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시행 첫날, 알뜰폰(MVNO) 이용자를 포함해 KT 망에서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 가입자가 이탈하며 시장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남 2. 1일 통신업계 집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 이탈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이 가운데 5,784명은 SKT, 1,880명은 LGU+로 이동 3. 나머지 2,478명은 알뜰폰 사업자로 번호이동하며, 위약금 면제 효과가 이동통신 3사를 넘어 MVNO 시장까지 확산되는 흐름 확인 4. 알뜰폰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기준으로는 하루 동안 5,886명이 KT를 이탈했으며, 이 중 SKT 이동이 4,661명으로 가장 많고 LGU+ 이동은 1,225명 수준 5. 같은 날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약 1만5,000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해 위약금 면제 발표 직후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 6. 이번 이탈은 KT가 지난달 30일 밝힌 위약금 환급 면제 조치의 직접적 영향으로 풀이되며, 지난해 9월 1일 이후 해지 고객까지 소급 적용된 점이 단기 이동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
중립적	■ SKT의 경우 7/4(금) 4/19~7/14 해지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발표. 7/4(금) -4.9%, 7/7(월) -0.05% ■ 위약금 면제 발표 첫 날인 1/2(토) KT 주가 -2.5%. SKT의 위약금 면제 발표 당시 보다는 충격이 크지 않음. 단통법 폐지 후 첫 플래그십 모델인 S26의 출시가 1월말~2월초여서, KT의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 이후에 해당되기때문에, 이탈 고객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25.4~7월 동안 휴대폰 가입자 기준 SKT -79만명, KT +35만명, LGU+ +25만명. 위약금 면제 발표 첫 날인 1/1 KT -1만명을 감안하면, 1/13까지 일별 1만명 수준의 이탈이 일어나더라도 25.4월 이후 순증 유지
산업 통신 3사 2026 전략	1. SKT·KT·LGU+는 2026년 신년 경영 키워드로 '초심 다지기'와 '신뢰 회복'을 제시. 잇따른 정보보안 사고로 훼손된 가입자 신뢰를 되찾기 위해 외형 성장보다 이동통신 본질과 기본 경쟁력 강화에 방점 2. 3사 CEO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MNO 서비스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신뢰 회복 없이는 AI·신사업 확장도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 3. SKT는 '기본과 본질'을 강조하며 단단한 MNO 재구축과 AI 중심 성장 전략 병행. 정재헌 대표는 AI 전환(AX)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초거대 모델과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 4. KT는 펨토셀 해킹 사태 이후 전사적 보안 인식 전환을 강조. 김영섭 대표는 네트워크·마케팅·CS 전 영역을 보안 대상으로 규정하며,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한 AX 사업 가속을 경영 방향으로 제시 5. LGU+는 '신뢰(TRUST)'를 신년사 전면에 내세움. 가입자·임직원·시장과의 신뢰를 경영 출발점으로 삼고, 투명성·약속 이행을 핵심 가치로 강조 6. 3사는 공통적으로 보안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AI 경쟁력이 향후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 2026년은 외형 확장보다 신뢰 회복과 기본기 재정립을 통해 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
긍정적	■ 25년 해킹사고 발생 전까지는 통신이 지수와 유사한 흐름이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지수 대비 아웃퍼폼. 25년말 KT, LGU+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킹 이슈는 일단락. 아직 후속 조치는 남았지만, 26년부터는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 ■ 3사 모두 안정과 신뢰 회복을 키워드로 제시한 만큼, 가입자 확보를 위한 무리한 경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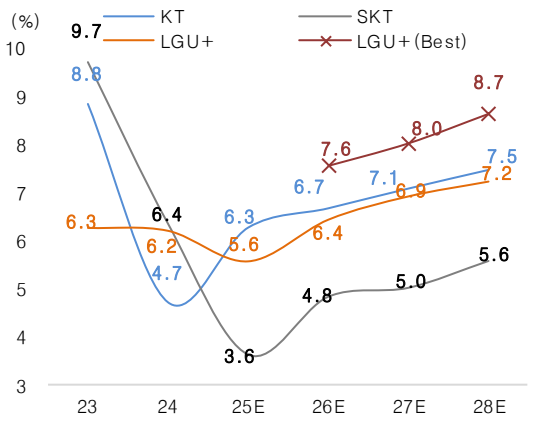
5.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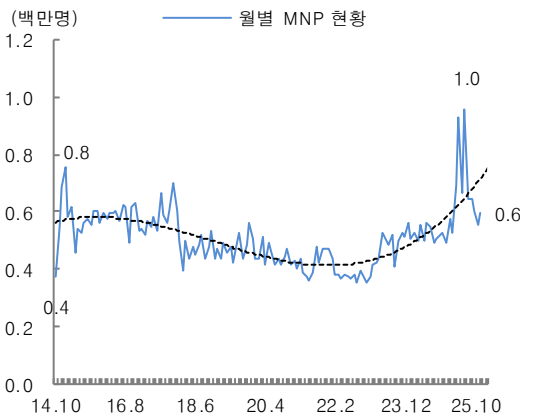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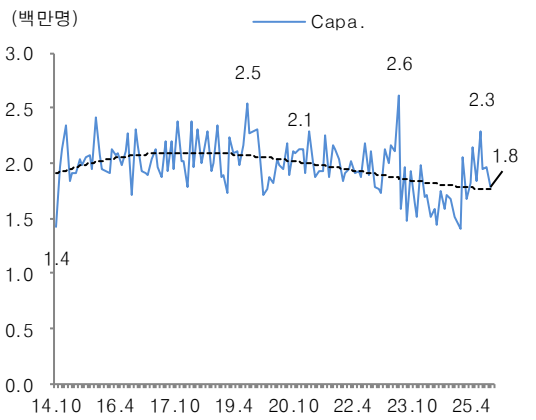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5.12월) 594천명, +43천명 mom. 24년 평균 521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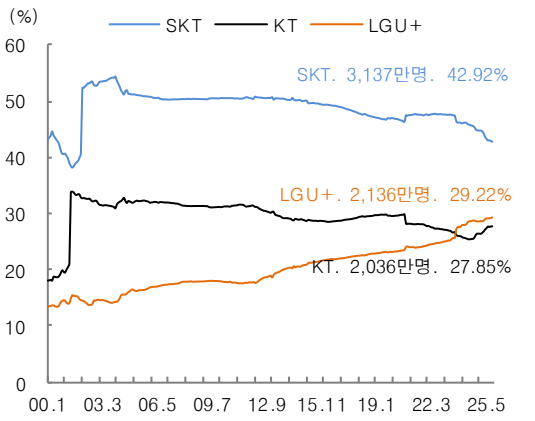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79만명(25.10월). 24년 평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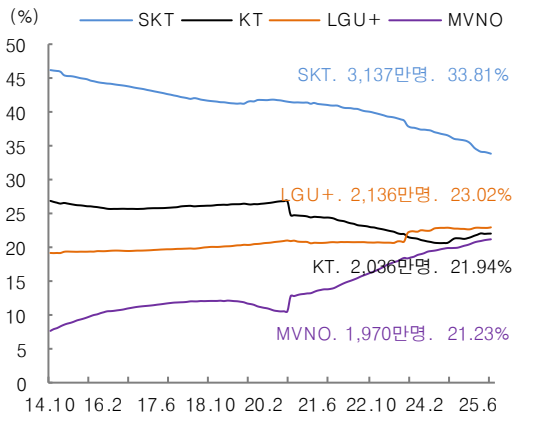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5.10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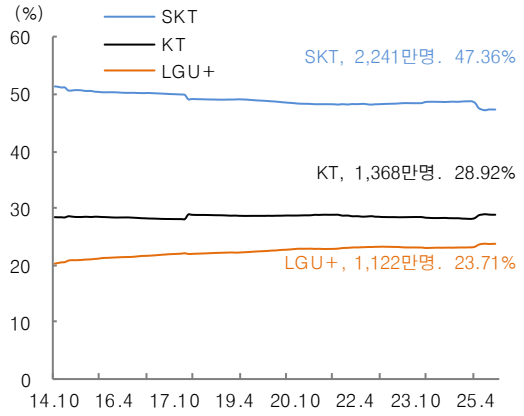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5.10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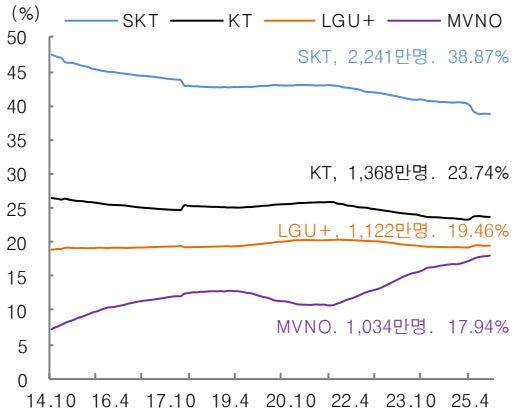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5.10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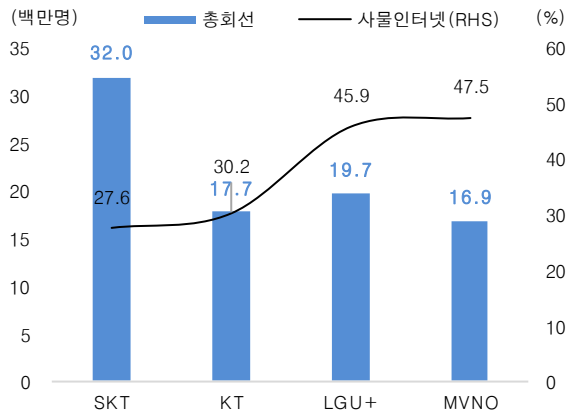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5.10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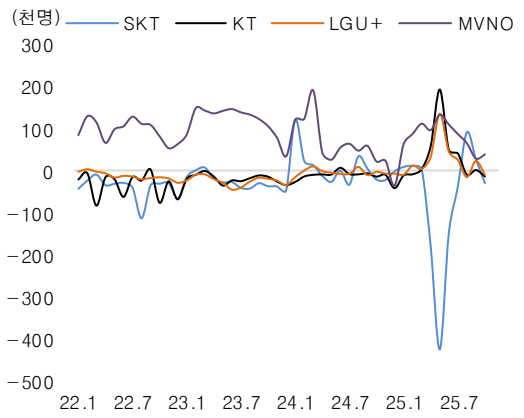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5.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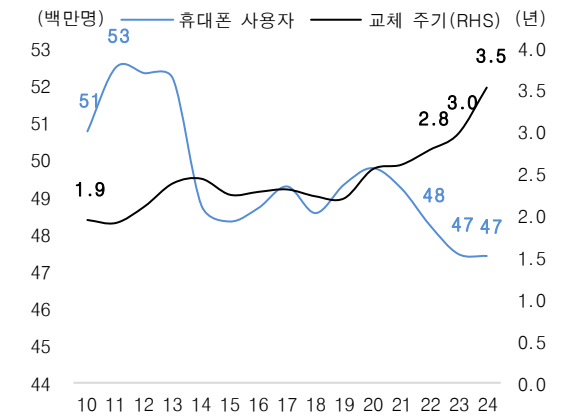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5.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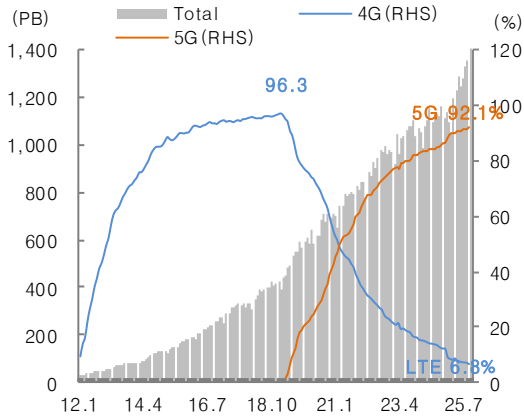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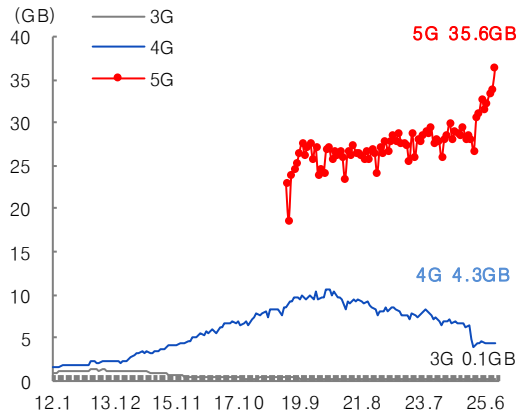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1%(25.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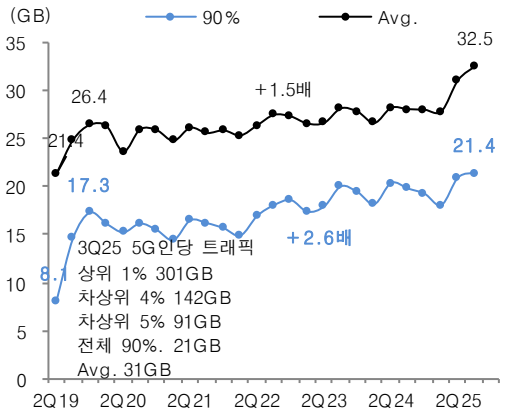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5.6GB(25.10월), +2,490M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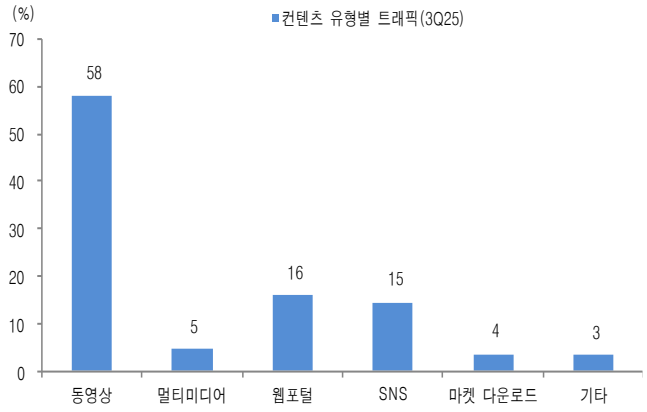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3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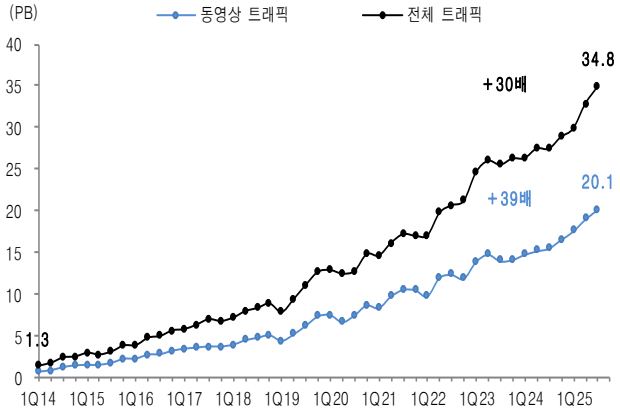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컨텐츠 유형별 트래픽(3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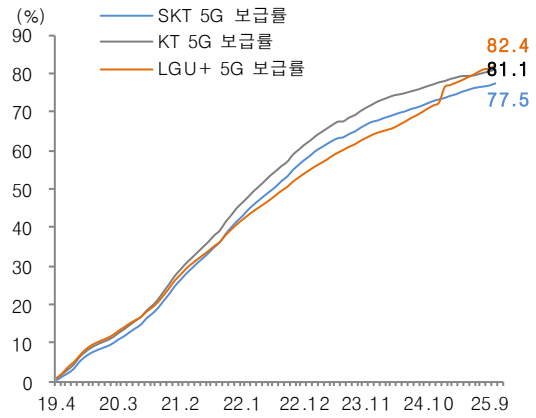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3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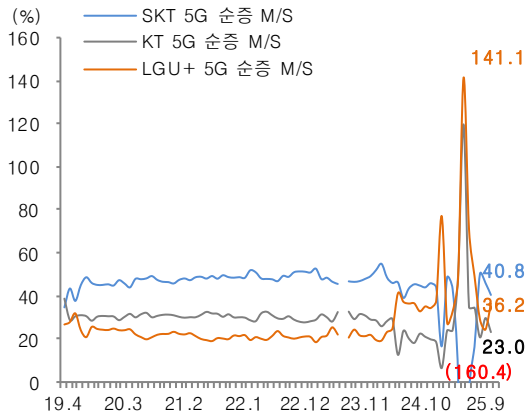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79.9%(25.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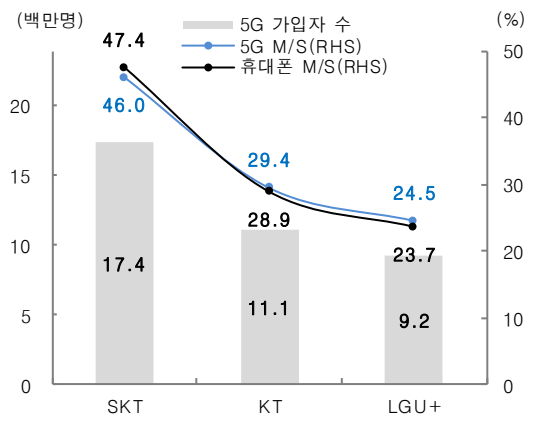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5.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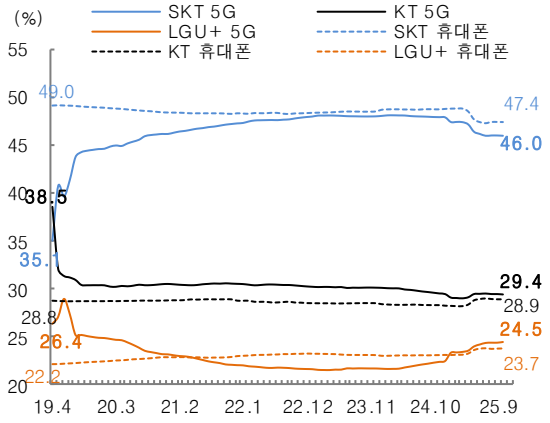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10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10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회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